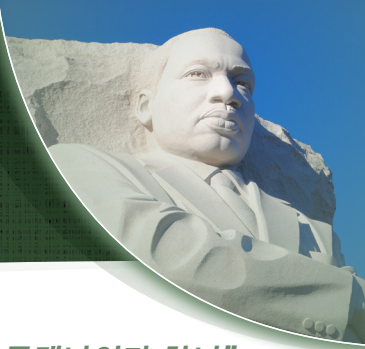


특별선교주일

인종평등선교주일 | 1월 14일

듣는 마음: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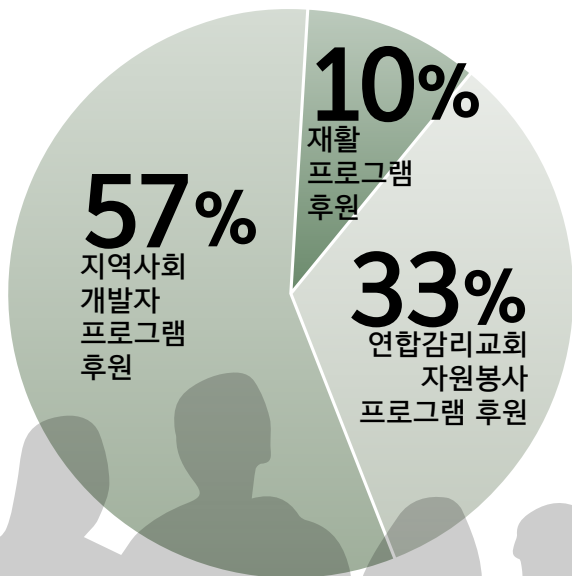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10

CELEBRATE

연합감리교인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태어난 주간의 주일을
인종평등선교주일로 지키면서 그가 품었던 “사랑받는 공동체”의 비전을 기억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우리의 예물은 옹호 사역 및
지역사회 사역을 후원합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선교주일 | 1월 14일

듣는 마음: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하기



인종평등선교주는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특별선교주일의 하나로, 인종정의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태어난 주간의 주일을 인종평등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특별 선교헌금을 드리며, 이 예물은 그가 품었던 “사랑받는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ers),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United Methodist Voluntary Services),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Youth Offender Rehabilitation) 등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어 잠재적으로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57%는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과 소수 인종 교회들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가 가진 필요에 맞게 지역 연합감리교회들의 사역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33%는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힘을 실어주어 불공정한 제도에 도전하고 생계가 위태로운 이들을 옹호합니다.
- 10%는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을 후원하여 젊은이들이 멘토링이나 기타 역량 강화 등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새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헌금은 섬김의 리더십, 지역사회 건설, 정의와 평화의 사역에 투자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활기찬 사역들을 후원합니다. 이러한 중요 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을 얻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반세기 이상 인종평등선교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기념해 왔습니다.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인종평등선교주일”을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웹사이트 UMC.org/SSGive 를 통해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후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